

전남도, 현안 실태조사 지지부진

계획보다 일주일 지연·애로사항 청취 등 관리 소홀 실적 안 좋으면 외부 공개 차단...행정 편의주의 발상

전남도가 현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 각종 실태 조사들이 '숫자 짜집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도가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사업들은 공약사항이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장들이지만 정작 조사 결과는 계획보다 최소 보름이상 지연되는 한편, 애로사항 청취 등은 소홀히 관

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각 국별로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마무리기로 했다. 우선 도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도내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단계별 분량 및 입주현황, 입

주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현재 6개 지자체 의견서만 접수됐을 뿐, 당초 계획한 52개 사업 지구별 애로사항 청취나 의견 수렴 등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농공단지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자료 분석 단계부터 이처럼 장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개

발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마저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박준영 지사의 공약사업이 한옥행복마을 조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한달 동안 19개 시·군 59개 마을에 대해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 공자현장 숫자 조사에만 그쳐 당초 점검 목적이었던 건축기준 준수 및 한옥 건설시공 위반 사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해양·어촌 관광자원 현황 조사 실시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으나 시·군 제출 자료만 받아 놓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양관광 종합정책'

수립할 계획이지만 언제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각종 실태조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하지만, 항상 민원 등이 발생해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는 '행정편의주의식 사고'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각종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비난 여론을 의식, 자료의 외부 공개를 차단해 현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업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승욱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대부분 시·군에서 확인된 결과를 도에서 보고 받다보니 일부 집계 과정에서 지연되는 건 사실"이라며 "각 조사계획을 점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ym711@namdnews.com

■ 브리핑 뉴스 ■

고위공직자 사전 청문회 개최키로

최근 국무총리·장관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직 인사의 추천 및 검증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비후보자가 작성하는 자기검증서를 기존보다 50분량 가량 늘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질적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 면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당정, 행정고시 축소 전면 백지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행정고시 인원을 축소하는 정부의 행정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한나라당 고홍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행정고시와 특채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행정고시 명칭만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권 의원은 "행정고시 제도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 인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모든 軍 건축물 석면 조사

국방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군부대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부대별 석면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MA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수조사를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 국가 공인 석면 조사사로 양성하고, 교육 이수자들로 부대별 석면조사팀을 구성한다. 석면조사팀은 앞으로 1년간 모든 군 건축물의 석면 함유 자체 사용여부와 손상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한나라 임두성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3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07~200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한테서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아파트 개발조합장 최모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으로 2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일선수재)로 기소됐다.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는 9일 무단 방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의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는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목사가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이 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아있는 원흉"이라고 말하고, 기업소에서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연설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뉴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구체화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TF팀 운영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TF팀 구성과 더불어 시민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잔재들이다. 9일 광주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시민단체, 산악인, 담양군·화순군 주민들이 참가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그동안 광주시가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 공무원 등으로 '무등산의 품격있는 생태자원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난달 27일 최종 3차회의에서 시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사를 모으고 국립공원 승격시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적 효과 창출 등 승격에 따른 장점을 시민에

게 알리기 위한 자리다. 또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복안이다. 송인성 전남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공청회는 ▲박승필 전남대교수가 무등산의 자연자원과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이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과정 및 효과 ▲최봉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조정 처장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 및 관리실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립공원이 되면 사유토지 등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가관리에 따른 시설물 불편 민원해소 지원 우려 등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고,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전남도, 9월분 재산세 933억 부과

전년비 99억 증가...순천시 149억원으로 최다

전남도는 올해 9월분 재산세 933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분과 세액 5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50%에 대해 부과된 것이며, 지난해보다 12.0%(99억원) 증가한 규모다. /오지남 기자 ocn@namdnews.com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14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여수시 146억원, 목포시 103억원 등의 순이다. 진도군은 7억원으로 가장 적다. 도내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41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오지남 기자 ocn@namdnews.com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9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곤충산업 '힘찬 날갯짓'

오늘 영암서 협회 창립...사육농가 정보교류 활성화

전남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가 창립돼 곤충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10일 오전 11시 영암군 전환경교육관에서 전남 곤충산업 발전과 생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곤충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 곤충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도, 시·군, 농촌진흥청, 곤충사육농가, 생물방제센터, 한방산업진흥원, 합평곤충연구소, 곤충생산업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창립총회를 주도해온 발기인 대표 최문채(합평군 곤충 사육농가·연소득 1억원)씨가 회장으로 선임되고 임원진 10명도 새롭게 구성된다. 지금까지 전남도내 곤충 사육농가는 구례·합평·해남 일원 64곳에 이르며 대부분 장수풍뎠이, 나비, 사슴벌레 등 애완·학습·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부업형이어서 규모나 기술 측면에서 영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사육 및 판로확보 등 경영안정을 위해 조직화 결성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곤충 사육농가당 평균

소득은 2천8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곤충산업협회에 도내 곤충 사육농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회 활성화를 통해 곤충의 사육기술과 유통정보 공유로 가격 하락을 막고 생산·유통경로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도 추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육성을 위한 '친환경 곤충산업'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해 곤충산업 생산기반 구축, 안정적인 유통체계 마련,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생태공존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곤충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지남 기자 ocn@namdnews.com

南道日報
광고 안내
참다운 지방신문 남도일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통 062) 670-1007
FAX 062) 673-2411

분실 공고
· 회원 권명 : 파인힐스 컨트리클럽
· 회원 번호 : J06-50-0043
· 회원 명 : 박준수
· 분실회원증 : 대, 소 각1매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분실 공고함.

국일수산
홍어 전문점
- 양동시장 내 홍어전 -
흑산홍어·철레산홍어 전문
☎062) 365-5443

국일수산
홍어 전문점
- 양동시장 내 홍어전 -
흑산홍어·철레산홍어 전문
☎062) 365-5443

세계로 꽃농원
고품격 전국 꽃매달 서비스
TEL : (062) 672-2222
FAX : (062) 671-6666
무로전화 : 080-569-3000
♥세계로는 정성과 감동의 작품을 선사합니다.
♥세계로는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삼성복사기 IT솔루션 전문점
사무기 판매 임대 A/S 전문
남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제품 특별전
최저가, 조달가로 납품 - 상담 -
CF-650, CF-371/371T, SCX-1870F, SCX-4610K, ML-1916K, SCX-4623FN, SCX-7423P/7428P
2010년형 삼성 레이저 / 디지털복합기
복사속도 45매/분(A4)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20-31 062-222-1990, 222-6106 011-602-4799
디지털복합기, 컬러복합기, 프린터, 팩시밀리, 출력기기, 코팅기, 손실기계, 문서제단기, 제본기, 재단기

조선의 그림수집가들
조선시대 컬렉터들의 생생한 이야기!
조선시대의 그림 컬렉터들을 집중 조명
명화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 우리
조선의 미의식과 미술에 대한 열정,
미술품 수집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조선시대 왕과 왕자들, 문인
들 서화 감상과 수집에 빠졌던 사람
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용유도원
도'의 화가 안견을 발굴한 안명대군,
파격적 스타일의 서화를 즐긴 연산군,
자기 분수에 맞는 서화 모으기를 할 것
을 강조했던 연암 박지원, 컬렉션으로
가산을 탕진한 양반 김광수, 중인 신분
으로 당대 최고의 선비화가 윤두서의
감식안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광국
등 그림에 미쳤던 사람들에 대한 다양
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손영옥 (지은이) | 글항아리 | 값 19,800원